

한우정부수매 및 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 건의(안)

존경하는 **국 회 의 장**
재정경제원장관 님
농 립 부 장 관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 안정에 전념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국 회 의 장
재정경제원장관 님께 충북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 립 부 장 관

그동안 한우사육 농가들은 WTO체제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우의 개량화와 품질을 고급화하며 소비자에게 좋은 우리 한우고기 공급으로 사육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축산물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축산물의 마지막 보루(堡壘)였던 쇠고기마저 2001년에는 완전 개방이 되어, 축산 농가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축산업은 최근 소값이 불안정해 지고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면서, 축산 농가가 1990년에 4만 8천여 농가에서, 금년에는 3만 8천여 농가로 7년 사이에 1만여 농가가 축산을 포기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7월 14일 농림부에서 2001년 쇠고기 완전 수입 개방후에도 2백 5십만두의 한우 사육 두수를 유지하고, 국내 쇠고기 소비의 30%를 한우고기로 소비하는 등의 한우사육 농가를 보호하는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한우사육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의 특별지원과 한우 정부수매 제도의 개선 등 축산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희망을 갖고 한우 사육에 전념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재정경제원의 농업투자축소 방침은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의 보완 정책이 아니라 농업을 포기하려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고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또한 세계 식량 위기가 예견되면서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농업에 대한 투자가 수십년, 수백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정개혁은 일부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그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기도 전에 투자를 축소한다면 모처럼 형성되기 시작한 농업과 농촌의 활력은 사라지고 그동안의 투자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농업의 중요성을 말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최근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암소한우 가격 안정을 위하여 4백 50Kg이상 미임신우를 정부가 수매 도축하여 암소값을 안정시키고, 수입쇠고기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 조절하고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혁신적 대책은 물론 한우의 사육두수 조절과 소비예측을 통한 근본적인 수급균형 유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투자는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 공익적 측면과 국가의 장래차원에서 축소가 아닌 지속적인 농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 회 의 장
 재정경제원장관 님
 농 립 부 장 관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긴축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WTO체제의 농축산물 완전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이 국가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어 풍요로운 농촌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특별한 관심과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 8. 30.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